

만남

2017년 9월
통권 152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나의 순교자 성월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은 나의 희망	4
그리스도인의 유머	낙원에서 쫓겨난 때는?	7
교리	신앙의 재발견 10~11	8
기도 소개	아멘	11
영적 상담		12
나눔		14
공동체 소식		16
지방 공동체 소식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3
미사안내		24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 선교 : 본당

우리 본당이 선교 정신을 북돋워 신앙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Schema

나의 순교자 성월

순교자 성월입니다. 숭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곳곳이 신앙을 지키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저라면 과연 박해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굳세고 강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음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마냥 누리기만 하는 편리함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해마다 각 교구에서는 9월이 되면 순교자 현양 대회를 개최합니다. 교구 전체의 신자들이 모여, 아니면 각 지구 별로 신자들이 모여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전구를 청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동을 누립니다. 정말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걸로 순교자들에 대한 예우는 다한 것처럼 여기는 때도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에는 병인박해 때만 해도 8,000명에서 10,000명의 신자들이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순교자들입니다.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오른 103위 성인, 그리고 124위 복자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순교성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3위 성인 그리고 124위 복자들에 대해서조차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더욱 더 고개를 숙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성월이 되면 적어도 한 번은 순교성인과 순교복자의 명단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미약한 움직임이지만 바로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순교자들이 지녔던 그 희망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순교자들이 계셨는지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시편 71편 5-8. 17-1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2장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의 믿음은 당신께 있나이다.
- 보호자이신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71편 5절에서 8절,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71, 5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 6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 7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과 같았으며
당신은 저의 굳센 피신처이셨습니다.
- 8 저의 입은 온종일 당신 찬양으로,
당신 영광의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17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18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19 하느님, 당신의 의로움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신 당신
하느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은총을 마련해 두셨고, 지금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나 자신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는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었다고 착각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다 보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일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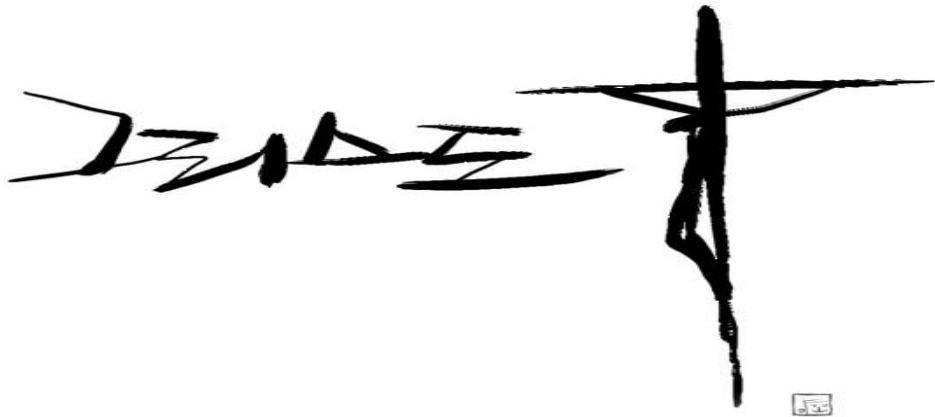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2장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세오도르(정현준)

❖ 그리스도인의 유머 ❖

♣ 낙원에서 쫓겨난 때는?

어린이 미사 때 보좌신부님이 아이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3학년 토마스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하였습니다.

“신부님, 9월 말까지 산 게 틀림없습니다.”

신부님은 소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의 대답은 대단히 과학적이었습니다.

“네, 신부님, 사과가 그 전에 익지 않거든요.”



10.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삼위일체(三位一體)’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의 머리카락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신비를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우리”(창세 1,26)라고 표현하거나 하느님을 말씀, 영, 지혜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예수님 탄생 예고 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루카 1,35)하고 삼위의 신비가 표현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라고 삼위께서 동시에 현존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태 28,19)라고 하심으로써 세 위격을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등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의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고, 325년 니체아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성부의 아들이자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사랑으로 일치시킵니다.

실제적으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본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한 교리는 인간 능력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믿는 것’에

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전례 예식을 비롯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행위의 기본인 십자성호에서부터 영광송, 사도신경 등 모든 기도문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세례성사를 위시한 모든 성사 생활에서 표현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강림대축일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대축일을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간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서로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에도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르는 것입니다.

❖ 신앙의 재발견 ❖

11. 교회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교회 헌장」 9항)

우리가 성사를 받고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불러 모은 사람들’(라틴어 ecclesia, 에클레시아)을 뜻합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강림날을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므로 단순한 공공기관이나 일반 세상의 단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지키고 있는 교회가 바로 가톨릭교회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는 오로지 한 분 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오직 하나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오직 하나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통입니다. 이 둘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룹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 기관을 지녔지만 전체로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 교회(교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2코린 6,16)인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직접 세우신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런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속한 이들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결코 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시기에 교회는 영원히 거룩합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됩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뜻하는데, 여기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여 계시고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지니고 있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르셨고 모든 민족들에게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넷째,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신앙유산을 보존하고 이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이래로 이 전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안수와 기도를 통해 주교에서 주교에게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사도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아멘(작가 미상)

우리 마음 안에 지녀야 할 자세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쁘게 되풀이되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받게 될 모든 것에 대해
아멘.

느끼게 될 모든 것에 대해
아멘.

두려워하게 될 모든 것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대령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때까지
주 예수님,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신 주님,
당신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세오필로폰텐트

질문

청년단체 활동을 하는데요, 신부님께서 일부 회원들만 신뢰하시고 눈에 띄게 배려해주시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특별히 잘못된 일도 없는데 왜 저는 싫어하실까 하는 생각과,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결정을 하시는 모습에 반발심이 들어 억누르기 힘듭니다.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묵과하는 다른 회원들의 행태도 어이가 없고요. 이런 마음을 안고 활동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동년배 신자들과 활동하고 기도하는 청년회가 제 삶에는 큰 힘이 되어 포기하긴 싫습니다. 더 밍보일까 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신부님을 볼 때마다 ‘저분은 신부님답다, 그렇지 않다’ 혼자 평가하는 제 모습에 하느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답변 - 김정택 신부(예수회 · 서강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인간의 성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칼 융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검사에서는 16가지 성격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첫 번째 지표는, 외향성(E)과 내향성(I)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인간이 지닌 일반적인 태도로 정신 에너지가 주로 바깥으로 많이 향하느냐, 아니면 자기 안쪽으로 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성격유형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는 내향 성향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신의 안쪽으로 쌓아 놓고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형이지요. 그런데 외향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엉뚱한 자기만의 생각으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요.

질문자는 동년배 신자들과 활동하고 기도하는 청년회에서 삶의 에너지를 많이 얻고 큰 힘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영적이고 내적인 신앙의 바탕을 꾸준히 닦아 나가면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간다면, 본당 신부님이 누구를 나보다 더 좋아하더라도 그것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청년회 활동을 통해서 내

가 맺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본당 신부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인정을 지나치게 목말라하고 본당 신부님이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하면 실망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서 자신 안에 화를 쌓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자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을 지니는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얼굴이신 예수님이시지요. 좀 더 자주 기도시간을 갖고,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서서히 힘과 용기, 그리고 에너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신부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지요.

먼저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을 키워 나가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강도를 높이는 훈련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지닌 강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한 점도 함께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그만큼, 신부님의 인정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고, 신부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하고,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내 마음속의 사랑’이란 시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용기를 내어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삶의 기쁨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을 송두리째 사랑한 사람, 순교자(살레시안 칼럼에서)

한국에서 그리스도교라는 꽃은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꽃은 성 김대건과 성 정하상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교자의 인내와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핏물을 받아 마시며 성장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 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뿌린 복음의 씨가 자라나 한국 교회라는 튼실한 나무로 성장하여 꽃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창전백삼(倉田百三)님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운명까지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그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엔도 슈사쿠님은 예수님의 참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가로지른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도록 허용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사랑하고 그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분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승리는 하느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줍니다. 순교란 단순히 순교자들의 성덕 또는 희생정신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그분의 특은으로 순교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순교자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신 위대한 일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특별한 섭리로 한국 교회의 복음 선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적 호기심과 종교적 진리를 찾던 한국 지식인들의 마음과 정신

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기회를 한국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닮기를 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지적 탐구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넘어가는 하느님 체험,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은 세례에 자신을 개방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성사적 삶과 교회적 삶을 살도록 했고, 그분들 대부분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임무를 두려움 없이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 정신과 초대 교회 사도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모범을 따라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형제애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거룩함과 진리의 누룩이 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한 제자들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자신의 신원 의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박해와 희생을 당해야 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써 순교의 월계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신분 상승 등 세상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를 위해 업신여김과 가난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유일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닌 신념과 신앙이라는 것은 자주 세속적인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하느님과 했던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도록 이끌고 있으며 복음의 근본정신을 희석시키고 세상이 제안하는 정신을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순교자들은 이 모든 유혹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흘린 순수하고 값진 피는 우리와 같이 자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을 열어 신앙의 숭고한 가치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애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베레나 (St. Verena)	김윤하	가브리엘 (St. Gabriel)	최서로
3일	그레고리오 (St. Gregory)	김유석 김성호		
4일	로사	이선주		
7일	레지나 (St. Regina)	서유미		
8일	마리아 (St. Maria)	권오상		
13일	요한 크리스토토모	김현서	29일	김재환 김청운 김채준 김찬희 김철현 최희로
17일	로베르토 (St. Robert)	강일남 이도선		
21일	요나 (Jonas)	이정훈 박요나 안태웅		
			30일	김혜정 김민현 김영호 이종하 심재은 임미경
				미카엘 (St. Michael)
				미카엘라 (St. Michaela)
				라파엘 (St. Raphael)
				소피아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세라피아	박경자(B)	21일	마태오	김명수(H)
6일	베아타	신의경(H)	26일	빈첸시오 가브리엘라 (St. Gabriela)	추이슬(B) 신윤경(O)
12일	마리아 (St. Maria)	양봉자(B) 유복희(O)	29일	미카엘 (St. Michael)	이종열(B) 김일환(H) 정근욱(H)
20일	정하상 바오로	정하상(O)		라파엘	임석순(H)

❖ 9월 성가번호

9월	입 당	봉 헌	성 제	파 견
3일	329	211	161	283
10일	46	511	166	289
17일	287	217	177	285
24일	가 족 미 사			

❖ 9월 미사 전례 봉사자 ❖

9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3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부남(베드로) 박우연(루치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2구역
10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3구역
17일	김매자(베로니카) 최성자(벨라멧다)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멧다)	주일학교	4구역
24일	가 족 미 사			창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7월 23일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8월 15일	8월 20일
계(€)	183.10	217.07	180.90	192.97	176.50	188.30
헌납금	550.00	295.00	70.00	20.00	0	150.00
구좌입금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520.00 * 헌납금 총 합계					1,605.00

❖ 자진헌납금 ❖

2017년 7월 23일 — 2017년 8월 20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김민옥,	김민수,	박성아,	신옥희,	심동근,	채규순,	한선지,
윤예진,	한규호,	서세원,	최순남,	최승진,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묵,	이중지,	이공중,
이석우,	이정수,	이수웅,	김용일,	김건,	김경미,	김형웅,
우동천,	육종인,	진윤희,	문경희,	한말조		

구좌입금 :

김유석,	방조영자,	최화영,	김동수,	김원자,	정숙 Eilinghoff,	최성자,
허채열,	김부남,	백정선,	홍경영,	허두욱,	서유미,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이정훈,	박준병,	김치수,	김수혜,	김진호,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남궁춘배,	허길조,	영희 Eggerstedt,	
옥수 Ranitzsch,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contents.pauline.or.kr

❖ Hamburg 공동체 소식

1.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2. 유럽 성령 쇄신 목상회가 Bergisch Gladbach에 있는 Kardinal Schulte Haus에서 8월 31일(목)부터 9월 2일(토)까지 있습니다. 저희 성당에서는 하노버 공동체의 목진만 형제님 부부가 참여하십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은총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예비자 교리반은 9월 3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습니다.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신자분들도 초대합니다.
4. 9월 16일 토요일, Nacht der Kirche 행사를 안내합니다. 18시 15분에 주교좌성당에서 미사, 19시 15분에는 콘서트가 있고, 이후에는 22시 30분까지 Domplatz에서 4개국 음식바자회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도 매년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대주교님과 함께 끝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5. 유럽 꾸르실료 25주년 울뜨레아가 9월 22일(금) 14:00시부터 23일(토) 16:00시까지 Haus Venusberg, Haager Weg 28, 53127 Bonn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꾸르실리스타들의 참여를 청합니다.
6. 9월 29일 금요일에는 19시 만남성당에서 축일미사를 봉헌합니다.
7. 오슬로 공동체 미사를 위해 주임신부님은 9월 30일 토요일에 출국하여 10월 1일에 돌아옵니다. 오슬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정정숙(아나벨) 자매님의 전화번호가 Tel. (040) 3071 5351로 변경되었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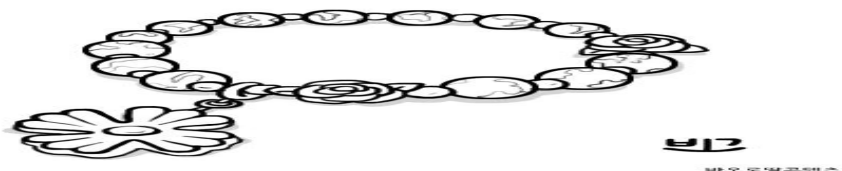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
2. 최모란(세실리아) 자매님이 HfK Bremen에서 Master of Music으로 졸업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저희 공동체에 Hfk Bremen에서 공부하는 최마리아 자매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만남을 감사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8월 정기미사는 12일(토), 연중 제19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이 날, 허규빈(가롤로) 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모 허윤선(아가다) 자매님에게 와서 공동체 미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3. 8월 소공동체 기도 모임은 25일(토) 17:00시에 최한우(바오로), 김혜경(아네스) 가정에서 가졌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감	최 영 자 파 울 라	040/ 3865 3332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9월 중 행사 예정표(순교자 성월)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유럽 성령 기도회	
2	토			브레멘 공동체
3	일	연중 제22주일	사목협의회	
4	월			
5	화			
6	수			
7	목	백로	꾸리아	
8	금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9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0	일	연중 제23주일	청년 소공동체	
11	월			
12	화			
13	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4	목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5	금	고통의 성모 마리아	2구역 소공동체	
16	토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하노버 공동체
17	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18	월	연중 제24주간 월요일		
19	화			
20	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1	목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22	금		유럽 한인 꾸르실료 25주년 울뜨레아	
23	토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추분		
24	일	연중 제25주일		가족미사
25	월			
26	화			
27	수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28	목		연령회	
29	금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19:00 축일 미사	
30	토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오슬로 공동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 남 ❖

발 행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르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